

우성조경을 찾아서...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우리나라 조경수 재배의 선구자이며 조경수협회 창설 주역으로 3대를 이어온 명문 조경농장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자리한 우성조경건설(주) 성상호 대표의 발안 관광농원을 찾았다.



성상호 (우성조경 대표)

3대를 이어온 조경 명가

6.25의 전흔이 채 가지지도 않은 1953년 1월 성상호 대표의 조부 성출성씨는 서울 명동 한복판 변화가에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며 모험적인 명동화원을 개설, 먹고 살기위한 의, 식, 주 해결조차 힘들었던 시절, 각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쁨과 정서적 위안을 줄 수 있는 청량제 같은 화훼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물려받은 부친 성춘근씨는 대대로 농사짓던 지금의 은평구 녹번동의 고향땅 3만여평에 장미원이라는 화훼농장을 설립 각종 화훼류와 조경수를 재배하고 1962년 당시만 해도 먼 시골지역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지금의 화성시

병점동에 5만여평의 토지를 구입 본격적인 조경업에 뛰어 들어 현재 성상호 대표까지 3대를 이어온 조경업의 선구자이며 명문 조경농원이다.

녹번동 시절

그는 1956년 어느덧 서울에서 유명한 화원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명동화원집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옛날부터 서울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통하던 대로의 지금의 국도1호선 통일로 변에 자리한 녹번동은 무악재 넘어 두 번째 고개가 녹번동 고개로 지금도 배를 다친데 사용하는 광물성 한약재인 산골(山骨)

건축의 속력시절과 농장전경

의 생산지로 유명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1949년 경기도 고양군에서 서울로 편입된 곳으로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시골티가나는 지역이었지만 이곳의 장미원농장과 서울 북판의 명동화원은 전후 복구와 산업화에 힘입어 우리나라 굴지의 화훼, 조경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경부 고속도로 전구간을 4등분하여 조경공사를 시행한 4인방 중의 하나이며 통일로와 광화문 광장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는 등 오늘날의 우성조경이 창업과 번창을 구가 하던 때가 녹반동 시절로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시절과 성장기를 늘 조경수 농장에서 생활하며 보고 배워 자 연히 조경수재배와 판매, 시공을 체험하며 익히게 되었다.



조형 소나무와 회엽수 묘지



자체 양묘 묘지

조경수협회 창립 주역

그의 부친 성춘근은 우리 조경수협회가 태동한 1962. 3. 2일 효창식물원에서 있는 최초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16명 중의 한사람으로 1967. 10. 19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당시 “대한관상수협회” 초대 이사직을 역임한 창설 멤버이며 원로 조경인으로 지금의 우성조경의 실제적 창업주이며 오늘날의 대형 조경회사로 번창시킨 장본인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절에 창업한 명동화원은 창업주 성출성씨가 1년도 안되어 급작스레 사망하고 1954년에 이를 물려받은 젊은 성춘근은 명동화원을 서울의 대표 화원으로 성장시켰으며, 1958년 서울 녹반동에 3만여평의 장미원이라는 화훼농장을 개설하고 1962년에는 남다른 안목으로 먼 장례를 보고 멀리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에 5만평의 조경수 농장을 개설 한국 조경업계를 이끌어온 주역이었다.

가업을 이을 조경업의 꿈을 품고

그는 고도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60~70년대 너도나도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산업현장으로 몰려들던 시절 서울 북판에서 유복하게 성장하며 대학도 경제학과를 나온 농사일과는 거리가 먼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을 꿈꾸며 살았다. 그의 형제자매 모두가 화이트칼라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뜻밖 바 있어 1978년 군 제대 후 부친의 화성시 병점 농장에서 조경수 파종, 삼목 등 양묘 기술부터 익히면서 조경인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만 해도 기계화가 안 되어 모든 작업이 거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던 때라 대형 수목의 굴취 이식 때는 목도를 매고 퇴비



연못원의 성상호대표



연못가운데 섬과 주변풍경

살포는 지계질을 해가며 하나하나 부친의 꼼꼼한 훈련을 받아 차남이지만 가업을 이어 받은 조경인으로 성장하였다.

도시화와 개발에 밀려 이전하기 2회

우성조경의 최초 창업지인 명동화원은 고층빌딩과 고급상가가 들어서면서 자연이 없어지고 서울 녹번동의 장미원 농장도 도시화에 밀려 조금씩 줄어들다 1987년 모든 수목을 병점농장으로 이전하여 떠나왔으나 이곳 역시 1995년 “동탄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5만평 농장이 2천평만 남아 지금은 우성조경건설(주)의 본사 사무실과 일부 조경수만 남겨 된 개발에 밀려나기를 두 번,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3번째로 “발안관광농원”이라는 조경수 관광농원을 조성,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조경사업을 이뤄가고 있다.

3번째 농장 수촌리의 발안관광농원

녹번동에서 병점으로 병점에서 다시 수촌리로 3번째 정착지인 우성조경의 본농장인 발안관광농원.

이곳 수촌리 농장은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에서 서해안 방면으로 82번 국도를 따라 약3km 가변 향남면과 장안면이 만나는 경계지점에서 남쪽으로 좁고 구불구불한 시멘트 포장 마을길로 약2km 떨어진 농촌 부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옛날부터 물이 많은 부락이라서 수촌

리라고 불리는 마을로 예전에는 수원까지 가기도 먼 화성시의 남서쪽 교통 오지였으나 지금은 고속도로와 방조제가 연결된 산업도로가 발달하여 사방 공장들이 가득 들어찬 야트막한 산자락 구릉지역에 1995년부터 새롭게 조성한 15ha(45,000평)의 넓은 농장 앞에 “우성조경건설(주)”와 “발안관광농원”의 커다란 간판이 나란히 서 있다.

복합 조경수 관광농원과 후계인 탄생

흔히들 말하기를 창업보다도 그를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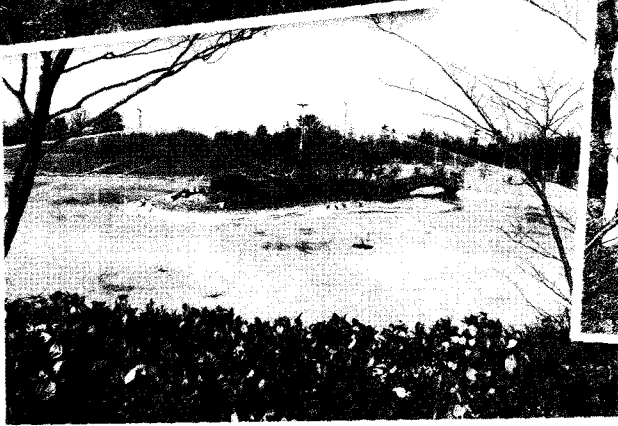
그는 이제까지 부친 그늘에서 농장을 관리해 왔으나 1995년 이곳 수촌리로 이전한 새 농장은 전적으로 그의 주도하에 설계 조성하여 창업과 수성을 멋지게 해냄으로서 새로운 조경 후계인으로 각광받게 되었으며 이후부터 우성조경의 실제적 경영자가 되었다.

그는 조경수 재배위주의 농장에서 탈피, 숙박 시설과 낚시터 물놀이 시설을 겸비한 관광, 레저와 현장 교육을 겸할 수 있는 복합 조경 관광농원으로 과감하게 변경 조성하였으며, 조경공사업도 전문식재공사업에서 특수공사업(조경) 면허를 취득하여 종합조경회사로 확장하고, 조경수 농장도 충남 부여군에 7ha(2만평), 경북 봉화군에 23ha(7만평)를 새로 조성하는 등 날로 번창시켰다.



◁ 흑백나무 포지와 농장전경

조형소나무 포지



연못위에서 내려다 본 연못전경



신문지로 동해방지한 칠엽수에 퇴비를 듬뿍넣어준 광경

물의 고장 수촌리 농장 풍경

옛날부터 물이 많아 수촌리라 불렀다는 이곳, 하지만 큰 강이나 냇물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하수인 샘물이 많은 고장으로 이곳 농장 역시 입구에 들어서면 4천 평이나 되는 넓은 연못이 제일 먼저 눈길을 끈다.

지금은 하얗게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지만 여름에는 각종 수련들이 가득 찬 연못이란다.

이 물로 1천평의 실내 낚시터와 3천평의 야외 낚시터에 물을 대주고 45,000평 넓은 농장과 생활용수를 다 사용해도 아무리 가뭄 때도 마르지 않는 수심 4~7m의 깊고 넓은 연못으로 가운데의 섬과 주변의 조경으로 운치를 더한데다 동물원의 큰 새 우리 모양 방사형의 그물이 쳐져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진귀한 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나 했더니 외부의 물새들이 연못의 고기를 잡아가서 막으려고 하였다. 연못 가운데 섬에는 토종닭만 20여 마리 노니는 것이 평화로운 그 자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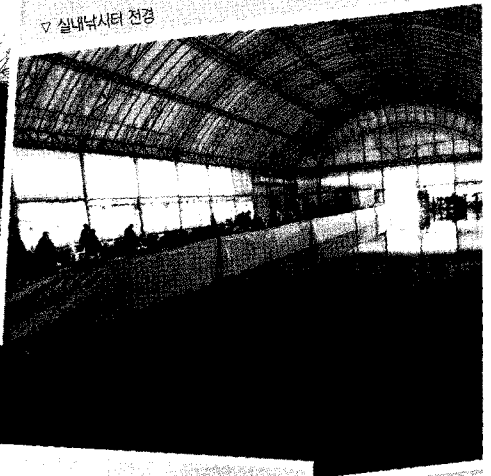
파종에서 육묘까지 친환경 재배

그는 3대를 이어온 조경농가답게 선조부터 전수받은 파종·삼목 기술을 활용, 자체 양묘한 조경수들로 재배한다. 종자나 삼수 역시 불량과 실패를 막기 위해 직접 자기농장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만치 농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오래된 조경수들이 많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제조계 또한 전혀 쓰지 않고 농약도 특별히 유행성이 강해 지역 전체가 방제하여야 할 때가 아니고는 쓰지 않고 대신 퇴비와 비료를 충분히 주어 튼튼하고 건실한 나무를 키워낸단다. 퇴비는 매년 4톤 트럭 70~80대분의 톱밥을 이웃의 축산 농가에 가져다주어 축사에 깔아준 후 나온 구비를 받아 2~3년 부숙시킨 것을 과수원처럼 듬뿍 뿌려주고 있다.



파고라와 언덕위 숙박시설



7 실내낚시터 전경



대형주목나무 묘지



농장위 부친(성춘근)산소

전통에 걸맞는 조경수 농장

이곳 조경수들은 유행에 관계없이 다양한 수종이 규격별로 고루 심어져 있다.

50년이 넘게 3대를 이어온 농장이다 보니 오래된 대형 고목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2번의 이전으로 오래된 나무들은 다 처분하고 대신 한번 심었던 나무는 계속 번식시켜 중부지방에서 생육되는 유행 지난 수종부터 현재 인기 품종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흔히 구하지 못하는 수종은 의례이 이곳을 찾아오는 조경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전통을 자랑하는 농장이다.

주목, 조형소나무, 흑백나무 등 상록침엽수와 칠엽수, 느티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산딸나무, 루브라잠나무, 이팝나무 등 대부분 수고 3~4m되는 나무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과수나무에 석회 유향합제를 발라 놓은 듯 칠엽수 하단에 동해방지를 위해 신문지를 감아 준 것이 껌질 트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그만이란단다.

낚시하고 열매 줍는 가족 관광 농원

처음 조성할 때는 낚시터는 물론 식당과 숙박, 물놀이 시설까지 갖춘 종합 레저타운을 구상하여 사방이 탁 트인 언덕 위에 60평과 20평형의 숙박시설 2동을 짓고 낚시터 2곳과 파고라 2곳 등을 설치하였으나 때마침 불어 닥친 IMF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현재는 낚시터만 운영하고 있으며 한겨울 영하의 추위 속 평일인데도 많은 이들이 실내 낚시를 즐기고 있었으며, 봄이면 냉이와 달래, 썸바귀 등이 지천으로 돌아나와 많은 이들이 놀러 오고, 10년 이상 된 살구나무가 1,000주, 앵두나무가 200주, 대추나무가 500주나 심어져 있어 오는 이들이 마음대로 따먹게 하고, 이른 봄부터 대화·목련이 피고 벚꽃과 철쭉이 피면, 연못의 수련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을 단풍철까지 언젠든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자연스레 나물 캐고, 열매 줍고, 야외취사하는 소풍 나온 가족 나들이객들로 만원을 이루는 이름 그대로 관광농원의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단다.

숙박시설 전경 (현재 관리사)

부여와 봉화에 농장 확장

그가 처음 자신의 힘으로 농장을 신설한 곳은 이곳 수촌리의 발안관광농원이 아닌 충남 부여의 점리 농장이다. 병점 농장이 “동탄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 이전하게 되어 우선 토지 구입이 용이한 충남 부여 점리 부락에 7ha(2만평)를 구입, 느티나무·왕벚나무·팔배나무·단풍나무 등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간을 하고 장비와 인부를 동원하는 일들을 그가 손수 다 경험하며 새로운 농장 조성을 이룬 것에 자신감을 갖고 수촌리에 본 농장을 멋지게 장만할 수 있었으며, 회사가 성장하고 조경수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멀리 경북 봉화군 유곡리, 일명 “닭실마을”로 잘 알려진 전통 한옥 마을에 23ha(7만평)를 구입 우성조경에서 가장 큰 또 하나의 농장을 확장하였다.

광화문 앞 은행나무 가로수와 경부고속도로 조경

가을이면 서울 도심 북판을 노란 빛으로 물들이던 광화문 광장의 은행나무 가로수, 경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의 파란 잔디와 관목 조경수, 이것들이 모두 우성조경이 시공한 대표적 사업들이기에 성상호 대표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남모르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졌었는데,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는 시멘트 벽으로 바뀌었고 광화문 앞 은행나무 가로수는 광장조성으로 뽑혀 없어져 버리니 그 섭섭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한다.

1950년대부터 꾸준히 조경업을 영위해 왔으니 자랑

할 곳이 한두군데일까마는 근래 시공한 안산시 노적봉 인공폭포 조경공사와 대전 현충원 조경, 수원영통 체육공원 조성, 행주산성 조경공사는 많은 이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곳으로 현재 24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3개소의 대형농장 45ha(13만5천평)에 각종 조경수 28만여 본을 재배하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굴지의 조경회사로 키워가고 있다.

성실과 겸양의 조경가족

그는 선조들이 이룩한 굴지의 조경회사를 이어받았지만 자만하거나 티를 내지않는 겸손하고 항상 배우며 노력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조경수협회 창설 주역 중의 하나인 조경회사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협회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은 물론 조경업 발전에 앞장서 일해 온 공로로 2010년 모범조경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고교 시절부터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현재 수원중앙교회 집사로 10년째 봉사하는 신앙인이며 농촌마을이 공장지대로 바뀌어 황량해진 주민들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은 물론 언제든 자연속에 쉬어갈 수 있도록 농장을 개방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2008년에 작고하신 부친의 산소를 농장 제일 위쪽에 안치, 늘 부친을 대하고 가르침과 교훈을 잊지 않는 효자로 부인 김해옥 여사(50세)와 1남 1녀를 둔 3대를 이어온 조경 가족으로 앞으로도 계속 조경업을 발전 계승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